

시민사회발전위원회 오찬간담회 국무총리 모두말씀

- 김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제2기 출범식 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
 - 그리고 오전 회의 중에도 더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
 - 오늘 새로 위촉되신 이충재 YMCA사무총장님, 그리고 정문자 여성단체연합 대표님을 뵙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1기에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분들, 2기 연달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, 그분들과 함께 좋은 논의들이 많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
- 아시다시피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
 - 정부에도 이런 조직은 흔하지 않음. 여러 단체들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신 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말씀에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음
- 정부는 현재 가장 큰 국정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, 이 과정에서의 민생안정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음
 -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감한 구조 조정과 특히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. 잘 아시다시피 공공개혁, 금융개혁, 노동개혁, 교육개혁까지 4대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경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여러 가지 우리사회에 비정상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해오고 있음
- 우리나라는 광복 70년의 성취를 든든한 주춧돌로 삼아서 다시 한 번 '큰 도약'을 이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음.
 - 우리 사회가 갈등의 벽을 넘어서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
 - 법질서가 확립되고 법 정신이 존중되는 '법치 사회'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울러,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'따뜻한 사회'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.
 - 이 두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, 이를 위해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

- 시민사회단체는 그 동안 우리 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오셨음. 앞으로도 사회의 '공동 선(善)과 통합'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
- 정부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제언을 기대하고 또 말씀을 저희들이 잘 소화해서 사회통합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애써하겠습니다
-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혹시 또 연말가기 전에 못 뵈지도 모르니 미리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행복한 한 해 맞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함.